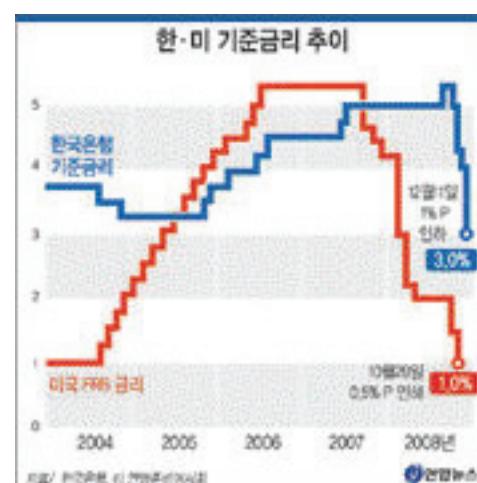


사상 첫 기준금리 3%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1%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은행들이 즉각적으로 여수신 금리 인하에 나섰다.

특히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2년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인하해 방침을 밝혀 가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주택대출 금리 최대 0.7%↓=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1일 91일 물 CD 금리는 전날보다 0.69%포인트 급락한 4.75%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06년 12월 19일의 4.74% 이후 최저치다. 하락 폭은 한 달 시기인 1998년 7월 20일의 0.71%포인트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CD금리도 2년만에 최저치 하락 주택대출 '이자 고통' 던다

우리·국민 내주부터 … 광주銀은 22일께 인하

예금금리도 내려 … 기업 부채상환 부담 덜듯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빠르면 12일부터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12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대출 금리를 연 6.11~7.41%와 6.01~7.31%로 각각 0.23%포인트 인하한다.

국민은행도 다음주부터 주택대출 금리를 5.51~7.01%로 이번 주보다 0.70%포인트나 낮출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최저금리가 5% 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10일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CD금리를 5일 평균해 매주 월요일 적용하는 광주은행은 현행 7.45~8.35%인 주택대출 금리를 다음주부터 반영하기 힘들어 오는 22일께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아직 금리 인하폭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CD금리 인하폭 만큼의 주택대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로 예상된다.

◇예금금리도 인하=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예금금리도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예금금리를 연 0.50~1.00%포인트 안의 범위에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은 영업점장 전결금리 기준으로 9개월체가 연 5.10%로 1.00%포인트 인하되고 1년체와 2년체는 6.15%와 6.20%로 각각 0.50%포인트 인하된다.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2.90%와 2.80%로 각각 0.8%포인트 인하되며 1천만원 이상 예치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고단백 MMDA 금리는 3.00%로 0.80%포인트 낮아진다.

우리은행은 한은이 예상치를 웃도는 1.00%포인트나 인하하자 한은 발표 후 45분여만에 조정

안을 내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각보다 금리인하폭이 커 놀랐다”며 “0.50%포인트와 0.7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1.00%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면서 금리 조정 안을 다시 짜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아직 금리인하 폭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장금리 추이를 감안해 수신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6.6%으로 아직 인하 폭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은행들의 추이를 보면 인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업대출도 내릴 듯=대다수 은행들은 기업대출 인하 여부와 폭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업대출도 대부분 3개월 CD금리에 연동돼 있는 만큼 조만간 금리 인하가 뒤따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인하 계획을 밝힌 우리은행의 경우 기업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2.90%로 0.8%포인트 인하하고 1억원 이상 예치한 법인에게 적용하고 고단백 MMDA 금리는 3.00%로 0.8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ju.co.kr

산업계 “환영”

경기부양·금융경색 완화 기대

11일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을 했으며 정부는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경제단체 등 산업계는 파격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수출기업, 건설업체 등 그동안 자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이번 금리인하로 금융경색이 완화되길 기대했으며 자금 차입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금리 인하로 이어지길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금융시장이 크게 경색되고 국내외 금리차가 상당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1% 포인트 인하는 그 폭에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물경제 침체 우려한 한은의 파격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금리인하가 시중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 자금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금리인하에 대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경기침체를 막는데 금리인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 기업 ‘솎아내기’ 내년 초 ‘퇴출’ 가시화

정부·금융당국, 방향 설정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은행의 거래 기업 5곳 중 한 곳은 요주의 대상이고 3분기에 제조업체 3곳 중 한 곳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연말 결산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퇴출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기업을 업종별로 점검하는 등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에 대비해 조만간 회계법인 등을 통해 영업 실적과 전망 등을 살피하고 필요하면 담보 제공이나 적극 구조조정, 보유 부동산 처분 등 자구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거래 기업 가운데 정상등급으로 분류돼 있지만 항후 신용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B+ 이하 업체가 15~20%로, 이 중에서 B- 이하의 주요 대상 5%에서 퇴출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기업금융개선지원 분부를 설치해 건설업과 조선업, 해운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이 은행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미만인 7만 여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부채비율과 유동성비율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조만간 구조조정 전담 부서를 만들어 살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누는 뒤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한 이후에 은행들의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연말 결산을 기점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백화점 6층 루디스매장에서는 스노우 스키용품을 맞아 고글·장갑·모자·마스크 등 다양한 스키용품을 정상가보다 20~3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TV 시범서비스를 통해 KBS1, EBS 등 공영방송과 홈쇼핑, 유로스포츠, 스카이 바둑 등 15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업체와 추가 계약을 통해 채널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인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소니픽처스, 20세기폭스 등 할리우드 7대 메이저 영화사,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국내외 270여개 업체와 제휴, 8만5천여 편에 이르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LG이씨의 myLGT는 영화, 교육, 건강, 레저에 초점을 둔 콘텐츠가 1만5천편이며, 상용화 시점에 30여개의 제작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ju.co.kr

1월부터 ‘IPTV 전쟁’

KT 이어 SK브로드밴드·LG데이콤도 서비스

KT에 이어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도 내년 1월부터 지상파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인터넷TV(IPTV)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은 11일 “KBS2,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지상파 실시간 재방송에 합의 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MBC도 조만간 협약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모든 지상파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

터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양사는 약관 신고, 시험서비스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IPTV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광주·전남 등 전국 서비스는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양사의 IPTV 월 시청료는 1만5천 원으로 KT(1만6천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브로드밴드

TV 시범서비스를 통해 KBS1, EBS 등 공영방송과 홈쇼핑, 유로스포츠, 스카이 바둑 등 15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업체와 추가 계약을 통해 채널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인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소니픽처스, 20세기폭스 등 할리우드 7대 메이저 영화사,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국내외 270여개 업체와 제휴, 8만5천여 편에 이르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LG이씨의 myLGT는 영화, 교육, 건강, 레저에 초점을 둔 콘텐츠가 1만5천편이며, 상용화 시점에 30여개의 제작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정보보호인식(주)	09년 시스템네트워크 정보보호 엔지니어 과정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521-1122
㈜대광텔레콤	[매장관리, 판매 및 사무관리] 정규직 여성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606-8803
㈜브랜드코리아	기획 업무 및 비서업무 전문 직원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16	062-974-1351
㈜유니셀	기술개발 인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8	062-653-2879
㈜코셋	[해외 수출] 영업/재무총무/생산 2009 분야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8	062-602-7765
㈜코레시아	관리, 회계 담당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8	062-603-0258
한국Bio-IT파운드리광주센터	사업관리팀장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18	062-602-7720
발해건축사사무소	감각있는 건축CG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8	062-574-6467
동양생명	[광주 북구] 금융전문가 신입 및 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9	016-430-8691
미봉하이텍	정규직 공정검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953-5225
로티보이광주종합점	베이커리 커피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20	062-655-2017
동양종합기획	맥 험프 디자인 경력직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21	062-222-5349
동림전자(주)	제품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3년	2200~2400	12/22	062-952-727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국내기업 품목 127개

메모리반도체·LNG 운반선 등

수출품목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27개로 늘었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일류상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1위 품목은 2002년 49개에서 2003년 59개, 2004년 78개, 2005년 86개, 2006년 121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1위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점유율 49.1%)와 LNG 운반선(80.5%), 해수淡化설비(43.0%), 박막액정 디스플레이(38.5%), CD-ROM 드라이버(42.0%), 플래시 메모리(53.7%), 선박용 대형디젤엔진(59.6%), 김치(84.9%), 자전거용 신발(34.0%), 전자레인지(22.2%) 등이다.

세계일류상품을 10개 이상 보유한 기업은 현대중공업(26개)과 삼성전자(26개), LG전자(18개), LG화학(12개) 등 4개사다.